일요일부터 '스포츠주간'

문체부, 29일까지 시행… 체육대회 · 프로스포츠 경기 할인 · 체력측정 등 실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과 함께 2023년 스포츠주간을 시행한다.

스포츠주간은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으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장, 학교 등에서 스포츠 행사가 실시된다.

올해 61번째를 맞이한 스포츠주간에는 '스포츠를 일상으로, 내일을 건강하게'라는 표어 아래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다양한 스포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래픽=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먼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거나 축소 운영됐던 체육대회와 스포츠 행사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열린다.

전국 17개 시·도는 체육단체와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부터 선수권대회, 종합체육대회 등을 개최한다.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스포츠 36경기 대상으로는 5000원 할인 혜택이 약 8만명에게 주어진다.

아울러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스포츠주간이 시작하는 23일부터 운동하는 국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체력측정, 스포츠클럽 활동, 기타 체육시설 이용 등을 하면 다시 체육시설 이용과 체육용품 구매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1인당 연간 5만 포인트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운동하는 국민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인트 적립 방법을 간편하게 만들고 사용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박세리 전 감독과 함께하는 '다같이 즐기는 스포츠활동 캠페인'을 시작으로 23일 오전 10시부터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는 국민체력100과 관련된 체력측정 종목체험, 간소화된 체력측정(헬스업)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제공한다.

최보근 체육국장은 "올해 스포츠주간은 코로나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낸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주간"이라며 "이번 스포츠주간을 계기로 국민들의 스포츠활동이 저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인권 친화 체육환경 조성 '총력'

전북체육회, 스포츠인권향상사업 진행

전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가 인권 친화적인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20일 도 체육회에 따르면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가혹행위·폭언·(성)폭력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해 스포츠인권향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내 학교 운동부와 대학·실업팀 선수 및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문성을 높이기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소속 된 전문강사들이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원광대학교 운동부 2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이 이뤄졌고, 앞서 도체육회 실업팀 선수와 지도자, 수영 심판 교육생 등도 교육을 받았다.

5월에는 진안군청 역도팀에 대한 교육도 예정돼 있다.

교육을 희망하는 운동부(팀)가 도 체육회 영재복지과(063-250-8321)로 신청하면 일정 조율을 거쳐 전문 인권 강사가 교육을 진행한다.

도 체육회 정강선 회장은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깨끗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2023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선수 초청 교육·훈련캠프.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 추진

대한체육회, 공적개발원조 국가 대상 회원종목단체와 협력

선수 초청 합동훈련 · 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 등 시행키로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위해 올해 개발도상국 스포츠 발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개도국의 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해 ODA 국가를 대상으로 회원종목단체와 협력해 △개도국 선수 초청 합동훈련 △개도국 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개도국 선수 초청 합동훈련 사업은 개도국 선수단을 국내에 초청해 한국 선수단과 합동훈련, 친선경기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 공유를 통해 참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한다.

지난 19일 라오스 야구 대표팀 초청을 시작으로 스포츠클라이밍, 요트 등 16개 종목 12개국 260여명을 지원한다.

스포츠지도자 교육과정 사업은 종목별 국제연맹에서 운영하는 국제 지도자 자격증 취득 과정을 국내에 유치해 개도국 국제 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자전거, 육상, 태권도, 철인 3종, 아이스하키 종목 60개국 200여명을 양성한다.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은 개도국에 국내 우수 지도자 파견, 스포츠용품 지원을 통해 개도국 내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국제대회 참가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0개국을 대상으로 레슬링, 양궁, 하키 등 10개 종목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 2월 대지진으로 스포츠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튀르키예에 탁구용품 지원, 복싱 초청 합동훈련, 아이스하키 국제 지도자 양성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한체육회는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 사업을 통해 올림픽 정신과 가치를 실현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강조하는 스포츠를 통한 연대와 화합의 정신을 이뤄나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배구연맹 · 도드람 "취약계층을 위해 써주세요"

총 6092만원 상담 기부물품 전달

한국배구연맹(총재 조원태)과 도드람양돈농협이 꾸준한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연맹은 20일 지난 '도드람 2022~2023 V-리그 올스타 선수 유니폼 경매행사'에서 발생한 수익금 3046만원 전액과 프로배구의 타이틀스폰서인 도드람양돈농협에서 지원한 매칭기부금 3046만원을 더한 총 6092만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사회 취약 계층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부 물품은 도드람양돈농협의 대표적인 가정간편식인 뼈해장국과 돼지고기 김치찌개, 도드람캔 햄 등으로 구성된 세트 제품 총 2000개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통해 취약 계층을 위해 쓰인다.

연맹은 이번 기부를 비롯해 사회적 취약 계층을 돕고 선수와 구단, 팬들이 모두 참여하는 건강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올스타 선수들과 함께한 1차 기부 캠페인, 프로배구 11개 연고지 취약 계층을 위한 2차 기부 캠페인,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3차 기부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뉴시스